

청소년기 가족결속력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의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Associations between Family Cohesion and Schoo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최정아

경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Jung-Ah Choi(chocolat@kiu.ac.kr)

요약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인 가족결속력과 개인요인인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설정한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주요 변수들 간의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결속력은 청소년기 학교적응력에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청소년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가족결속력 강화와 자기효능감 증진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학교적응 | 가족결속력 | 자기효능감 | 청소년 | 매개효과 | 구조방정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ssociations among family cohesion, self-efficacy, and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ce. This study investigated these interrelationship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indicated that family cohesion had effects on school adjustment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self-efficac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results imply that family cohesion and self-efficacy need to be emphasized as a strategy to improve schoo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 keyword : | School Adjustment | Family Cohesion | Self-efficacy | Adolescence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Mediating Effect |

1. 서론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은 대부분의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들이 직면하게 되는 주요한 도전 및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99.9%의 중학교 진학률과 99.7%의 고

등학교 진학률을 보이고 있는[1]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이 일상생활의 상당한 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며, 따라서 학교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학습이 발달과업 수행에 핵심적이면서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적응은 청소년

* 본 논문은 한국콘텐츠학회 2015 춘계 종합학술대회 우수논문입니다.

접수일자 : 2015년 07월 10일

수정일자 : 2015년 08월 04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9월 07일

교신저자 : 최정아, e-mail : chocolat@kiu.ac.kr

의 건강 및 발달과 관련된 학문적, 실천적 분야에서 주요한 관심 주제가 되어 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조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학업중단 청소년이 매년 6~7만 명에 이르며, 학업이나 교우관계의 어려움,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등 학교부적응이 이러한 학업중단에 대한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밝히고 있어[2][3] 이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학습의 양과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학교생활에의 적응은 아동 및 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 뿐 아니라 이후 성인기의 삶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전반적인 삶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학교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혀내고, 이러한 요인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생활에의 적응은 개인적 특성과 사회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다양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청소년에게 있어서 가장 밀접한 환경인 가족과 청소년 개인의 특성은 더욱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시기로 알려져 있으나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청소년기에도 가족은 여전히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4], 부모와의 결속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6].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기 학교적응에 대한 부모 및 가족 요인의 중요한 역할 역시 최근 연구를 통해서 검증된 바 있다. 중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Xia 등[7]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소년기에도 여전히 부모 및 가족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지지되었다. 한편, 청소년기 적응과 관련된 일부 연구자들은 기존 연구들에서 적응에 대한 개인 및 환경 요인 간의 복합적인 관련성이나 상호작용이 고려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8], 이후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환경 요인 모두를 포함하고 동시에 더 나아가 환경요인과 개인요인 간의 관계

를 함께 고려하는 연구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9][10].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 요인으로서 가족결속력, 그리고 청소년 개인 요인으로서 자기효능감에 주목하였다.

써큘플렉스(circumplex model) 모델을 제시한 Olson 등[11]은 가족결속력이 청소년기 전후와 청소년기 동안 일생을 통틀어 또래 집단이나 어떤 다른 사회구조가 대신해줄 수 없는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즉, 가족이 제공하는 결속감은 기본적인 주요 집단에 대한 동일시를 가능하게 해줄 뿐 아니라 정서적, 지적, 신체적 친밀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11]. 최근 수행된 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족관계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후기 청소년기의 가족결속력에 대한 예측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청소년기의 건강한 발달 및 적응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기도 하였다[12]. 한편,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이러한 가족결속력은 아동 및 청소년의 신체적, 정서적, 교육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공격성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에 대하여는 보호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13], 이와 맥을 같이 하여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왔다[14-16]. 그런데 이와 같이 가족결속력이 청소년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연구들은 많이 수행되어온 반면, 왜 이러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즉, 가족결속력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기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매개요인을 밝힌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으며, 최근에 들어서야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가족요인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청소년기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함의를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확인되어 온 가족의 긍정적 특성이 어떠한 측면에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그러한 측면을 강화시킬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족의 중요성이 더 많이 강조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년의 적응 및 발달과 관련하여 가족 특성이 어떠한 매개요인을 통하여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밝히고, 이러한 측면을 청소년에 대한 개입에 반영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결속력이 어떠한 매개변인을 통하여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청소년 개인 요인인 자기효능감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는 자기효능감이 가지는 학교적응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및 가족결속력과 관련된성 때문이다. 학교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에 대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학교적응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개인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17][18], 일부 연구들을 통하여 이러한 자기효능감이 가족결속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19-21] 가족결속력과 학교적응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되어 온 양상을 보인다. 즉, 학교적응에 대한 다양한 영향요인 분석[17][22][23], 매개효과 검증[20][24-26], 종단자료를 이용한 분석[26][27] 등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해왔으며,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더 세부적인 과정에 대한 연구의 발판이 마련되어있다. 하지만, 청소년기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보호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된 가족결속력이 청소년 개인의 어떠한 긍정적 특성을 강화시킴으로써 그러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 단, 일부 선행연구들의 경우, 가족결속력이 포함된 가족요인과 자기효능감 또는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으나[19][20] 가족결속력 뿐 아니라 가족적응력이나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등을 포함하여 분석한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가족적응력의 경우, 비선형적 성격으로 인하여 가족기능 측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된 바 있어[28] 이를 하나의 가족요인으로 분석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가족결속력과 의사소통이나 문제해결능력 등 다양한 가족요인을 하나의 요인으로 처리하여 자기효능감 및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경우에도

도출된 영향력이 어떠한 가족요인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다양한 특성 가운데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청소년기 적응에 대한 보호효과가 확인된 가족결속력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보다 정확한 영향력을 확인함과 동시에 청소년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적응에 대한 개인요인 가운데 그 영향력이 검증되었으며, 가족결속력과 관련성도 일부 보고된 바 있는 자기효능감에 초점을 맞추어 자기효능감이 가족결속력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실증적인 검증을 하였다. 단,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성별, 학교급(초등, 중등, 고등), 가족의 경제적 수준 등[16][22][29][30]을 통제한 후 주요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II. 선행연구 고찰

1. 가족결속력과 학교적응

학교적응이란 아동 또는 청소년이 학교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교실에서 편안하게 느끼며, 학교에서의 활동에 참여하고, 학업을 따라가는 정도 등을 의미한다[31]. 또한 Perry와 Weinstein[32]은 학교적응은 교실에서의 지적, 사회정서적, 행동적 요구에 대한 적응을 포함하며, 이러한 영역을 가로지르는 특정한 능력 개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다차원적 과정이라고 개념화하였다. 이와 같이 학교적응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들마다 다르게 제시되고 있으나 사회적, 학업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발성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서의 전반적인 적응과 성공이라는 개념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33][34][35]재인용). 즉, 학교환경에 적응함에 있어서 사회적, 학업적으로 성공적인 아동 또는 청소년을 학교에 적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생태학적 발달모델에 의하면, 청소년은 가족이나 학교와 같은 미시 환경체계와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하게 된다[36]. 이러한 모델에 의하면, 환경체계는 보다

근접한 체계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관련 연구들은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있어서의 가족의 주요한 역할에 주목해왔다 [5][37]. 이러한 역할 중에서도 가족역동, 특히 부모-자녀 관계는 아동 및 청소년의 적응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 [38]. 가족결속력은 이러한 가족역동의 한 차원으로서, 가족 성원들 간에 느끼는 친밀감의 정도[39] 또는 지지적, 양육적, 애정적인 가족 성원들 간의 상호작용[40]을 의미한다. 그동안 보고되어 온 여러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이러한 가족결속력은 청소년기 발달에 대한 주요한 영향요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41][42], 심리사회적 적응[43], 불안 및 스트레스[44], 내재화 및 주의력 문제[45]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왔다. 이와 같이 가족결속력은 아동 및 청소년기 건강 및 적응과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예측에 대한 실증적 근거들을 제시해주는 관련 연구들 역시 다음과 같이 보고되고 있다.

먼저, 가족결속력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하여 보호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근 이루어진 Moreira와 Telzer[46]의 종단연구에 의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족결속력이 증가할수록 우울증상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가족결속력의 보호효과가 종단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또 다른 McKelvey 등[47]의 연구에서도 가족결속력이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대하여 부적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소년기 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Plybon과 Klierer[48]는 고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8~12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속력이 강한 가족의 청소년일수록 행동문제 수준은 낮다고 보고하였다.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행에 대한 가족결속력의 보호효과 역시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되었다[49-51]. 이 가운데 특히 Church 등[49]은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족결속력과 청소년기 비행 간

의 종단적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가족결속력이 강할수록 비행 수준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가족결속력이 청소년기 부적응 문제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실증으로 검증하였다. 이와 같이 가족 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하는 가족결속력은 청소년기의 다양한 부적응 문제, 즉, 비행이나 행동문제 등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학교현장과 좀 더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요인들에 대한 가족결속력의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들 역시 보고되었는데, 즉, 가족결속력은 학업성취[52], 무단결석[53], 규칙위반[15]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학교적응과의 관련성을 검증한 국내 연구들 역시 일부 보고된 바 있다. 조미형과 이정은[26]의 연구에 의하면, 긍정적인 부모와의 관계가 학교적응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정아[27]의 연구에서는 가족결속력의 요소를 포함하여 측정된 부모지지 변인이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영향은 종단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명심과 장경문[25]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건강성의 하위차원인 질적 유대감이 학교적응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현아와 최인숙[23]의 연구에서도 가족결속력이 학교적응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가족결속력의 영향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있어서다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권순용[24]의 연구에서도 가족결속력이 포함된 가족기능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성화 등[20][54]의 연구에서 역시 가족성원 간의 유대, 즉, 가족결속력이 포함된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가족결속력은 청소년기 학교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지적, 애정적인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강한 가족의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에 대하여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국내외의 다수 연구들은 청소년의 학교적응 증진에 대한 가족결속력의 역할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많은 연구들은 직접적인 학교적응 변인을 측정하지 않았거나 가족결속력과 적응력 또는 가족 간의 의사소통 등 다양한 차원의 가족기능을 포함하여 하나의 변인으로 측정된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결속력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가족기능이 학교적응에 대하여 가지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가족결속력과 적응력 개념을 함께 제시한 씨컴플렉스 모델에 대한 논의와도 맥을 같이 한다. 가족결속력은 씨컴플렉스 모델의 핵심 개념 중 하나로서, 가족결속력 수준과 자녀의 적응 간의 관계는 선형(linear)이 아니라 곡선적 관계(curvilinear relationship), 즉, 너무 약하거나 강한 결속력은 모두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되었었다[55]. 하지만, 이러한 비선형 관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며 [56][57], Reichenberg 등[58]의 연구에서도 가족결속력이 강할수록 자녀의 심리적 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결속력이 강할수록 심리적 부적응 수준이 높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지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논란과 관련하여 가족결속력의 선형성을 뒷받침하는 국내 연구 역시 보고된 바 있는데, 가족 결속력 및 적응력 척도의 선형성에 관한 실증적 검증을 실시한 김득성과 김수연[28]에 의하면, 가족결속력은 선형적 성격을 가지는 반면, 가족 적응력은 선형적 요소와 비선형적 요소가 섞여 있어 하나의 척도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 결속력 척도는 선형적이며 가족기능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으나 적응력 척도는 일관성이 낮아 가족기능 측정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p8). 즉, 가족결속력은 강할수록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가족적응력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련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가족기능 가운데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며, 또한 그러한 선형관계에 대한 가정이 적절한 가족결속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2.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결과를 야기하는데 필요한 행

동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의미하는데 [59](p.193),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청소년기의 다양한 발달 및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연구되어왔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청소년들일수록 비행[60], 우울 및 불안[60][61], 스트레스[60] 등의 수준은 낮은 반면, 심리적 적응[62]이나 만족감 또는 안녕감 [63][64]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의 긍정적 역할을 검증한 Ma 등[63]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주관적 안녕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주관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적응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긍정적 영향 뿐 아니라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에 대한 영향 역시 보고되었는데, 먼저, 자기효능감은 학교 현장에서의 인내력, 끈기, 성취[65], 그리고 학업수행 및 인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6]([67]제인용). 12~16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Hoeltje 등[62]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 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상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실제적인 학업기능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Roeser 등[68]의 연구에서도 학업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Schnell 등[69]의 연구에서 역시 자기효능감이 학업수행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관련성은 시험불안 정도와 관계없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Chemers 등[67]의 연구의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학업수행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응에도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학업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영향은 과거의 성적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성적과 같이 객관적으로 측정된 변수를 능가하는 예측력을 보여주었다. 요컨대, 어떠한 결과를 야기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이 강할수록 학업 수행이나 성취 수준이 높으며, 시험불안이나 과거

성적과 같이 학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도 학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긍정적 효과는 여전히 유지되었는데, 이는 학교적응에서의 핵심적 차원인 학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강한 긍정적 영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보호 효과는 국내연구들을 통해서도 보고되었다. 1991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석·박사학위논문 및 학술지에 게재된 학교적응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한 이지연 등[17]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효능감($r=.516$)은 큰 상관관계를 가지는 예측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정운정과 임선아[18]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전체 효과는 .339로 중간 이상의 효과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긍정적 효과는 이미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서 검증된 것으로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청소년 들일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 역시 높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높은 자기효능감은 부정적인 정서를 잘 다룰 수 있도록 하며, 삶에 대한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더 증진시키는 등의 핵심적인 보호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70], 이용가능한 자원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도전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스트레스를 감소시킴으로써 청소년의 적응력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67].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학교적응에 대한 개인 영향요인으로서 자기효능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그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3. 가족결속력과 자기효능감

청소년의 건강한 적응은 기능적인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지지적인 가족기능, 그리고 외부 지지체계의 상호작용 등을 통해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보호요인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요인, 즉, 가족결속력이 어떠한 과정을 통

하여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밝히고자 청소년 개인요인으로서 자기효능감에 주목하였다. 생태학적 관점에 의하면, 가족과 같은 환경 요인은 청소년의 학교적응 뿐 아니라 개인 요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35], 이러한 설명과 맥을 같이 하여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은 가족요인, 특히 가족결속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자기효능감은 일상적인 문제와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신념이라고 정의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정의에 비추어 볼 때, 매일 매일의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가족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론된다[62]. 이러한 자기효능감에 대한 가족의 역할을 검증한 실증적 연구들이 일부 확인되고 있는데, 먼저, 9~12세 사이의 라틴계 미국 청소년들과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Leidy 등[21]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결속력이 다음 해의 자녀의 사회적 자기효능감 향상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전 시점의 가족결속력을 통제된 상태에서도 그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족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청소년들일수록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족결속력이 자기효능감에 대한 주요한 예측요인임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특히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였기 때문에 가족결속력과 자기효능감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북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양점도와 박영국[19]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결속력과 적응력이 포함된 가족요인이 자기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지역 초기 청소년 3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성화 등[20]의 연구에서도 가족성원 간의 유대, 즉, 가족결속력이 포함된 가족건강성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들은 가족결속력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결속력이 강한 가족 내에서는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용이할 수 있고, 가족 내에서의 기능적 행동에 대한 모델링 역시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나 도전을 해결함에 있어서 보다 많은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21].

이러한 자기효능감에 대한 가족결속력의 영향과 더불어 앞서 제시된 학교적응과의 관련성도 함께 고려하면, 자기효능감은 가족결속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 역시 일부 보고된 바 있다[20][21]. 하지만 이렇게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은 가족결속력이 아닌 다양한 차원들이 포함된 가족건강성의 효과를 검증하였거나 학교적응이 아닌 보다 일반적인 적응과 관련된 변수를 사용함으로써 가족결속력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학교적응 간의 고유한 관계를 정확하게 검증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보호적 가족요인 가운데 가족결속력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가족결속력이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가족결속력의 개념을 제공한 씨킴플렉스 모델[55]과 자녀의 적응에 대한 가족결속력의 긍정적 영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57][58], 그리고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제공한 사회학습이론[59]과 가족결속력 및 학교적응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보고한 관련 선행연구들[17-21]에 근거하여, 가족결속력이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 역시 학교적응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씨킴플렉스 모델에 의하면, 가족결속력은 가족 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하며, 격리(disengaged), 분리(separated), 친밀(connected), 밀착(enmeshed)의 4가지 수준으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분리와 친밀 수준은 자녀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지만 격리와 밀착 수준은 모두 자녀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어져 왔다[55]. 하지만 이후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가족결속력은 강할수록 자녀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져 [28][56-58]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선형적 성격을 반영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또한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59]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의 노력과 인내 정도에 영향을 미쳐서 어떠한 행동을 선택할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일지,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일지 등에 대한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청소년기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학교적응에 대하여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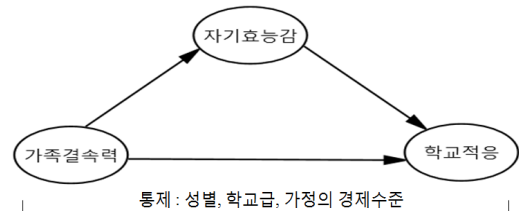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0 한국청소년건강실태조사(Korean Survey on the Health of Youth and Children in 2010)[71]를 통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초등학교 4~6학년생과 중·고등학생 9,844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모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자의 51.4%는 남학생이었으며, 48.6%는 여학생이었고, 초등학생은 27.0%, 중학생은 33.1%, 고등학생은 40.0%를 차지하였다.

3. 측정도구

3.1 학교적응

본 연구에서는 2010 한국청소년건강실태조사에서 사용된 문항들 가운데 학교적응과 관련된 ‘수업 내용 이해’, ‘수업 내용 정리’, ‘수업 시간의 집중도’, ‘학교규칙준

수, '학교시설이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5개 문항을 이용하여 학교적응수준을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831이었다.

3.2 가족결속력

본 연구에서는 2010 한국청소년건강실태조사에서 사용된 문항들 가운데 '가족이 서로 아끼는 정도',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는 정도', '가족이 힘들 때 의지가 되는 정도', '가족의 친밀도', '가족의 상호 관심 정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5개 문항을 이용하여 가족결속력을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921이었다.

3.3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2010 한국청소년건강실태조사에서 사용된 문항들 가운데 '일 처리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 등을 묻는 3개 문항을 이용하여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845이었다.

3.4 통제변수: 성별, 학교급, 가정의 경제수준

본 연구에서 가정의 경제수준은 7점 척도로 측정된 연속변수로, 성별은 남=1, 여=0, 그리고 학교급은 초등학교를 기준집단(0)으로 중학교(1)와 고등학교(1)에 대하여 각각 더미 코딩(dummy coding)하여 분석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족결속력, 자기효능감,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는 잠재변수를 규정하기 위한 측정모형의 개발과 잠재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정이 포함되는데, 측정모형은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관계를 규정해주는 것으로서[72],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측정모형을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형 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유의한 경로를 확인하였다. 구조방정식은 측정오차를 통제할 수 있으며, 매개변수의 사용이 용이하고, 이론 모형에 대한

통계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73]. 이러한 장점을 가지는 구조방정식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ta = B\eta + \Gamma\xi + \zeta, \tag{1}$$

$$y = \Lambda^y\eta + \epsilon, \tag{2}$$

$$x = \Lambda^x\xi + \delta. \tag{3}$$

(1)은 잠재변수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η 는 내생변수의 vector, ξ 는 외생변수의 vector를 나타내며, B 는 내생변수 간의 효과, Γ 는 외생변수가 내생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계수행렬, 그리고 vector ζ 는 방정식의 오차항을 의미한다. (2)와 (3)은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요인분석적인 측정모형으로서, vector y 는 내생변수의 측정변수, vector x 는 외생변수의 측정변수이며, 계수행렬 Λ^y 는 y 와 내생변수 η 와의 관계를, 그리고 Λ^x 는 x 와 외생변수 ξ 와의 관계를 의미하며, vector ϵ 와 δ 는 측정오차를 나타낸다 [74]([75] 재인용). 이러한 방정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모형의 수식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ext{학교적응} = a^* \text{가족결속력} + b^* \text{자기효능감} + e_1 \tag{4}$$

$$\text{자기효능감} = c^* \text{가족결속력} + e_2 \tag{5}$$

$$f_{c_i} = f_i^* \text{가족결속력} + \delta_i \tag{6}$$

$$se_j = f_j^* \text{자기효능감} + \delta_j \tag{7}$$

$$sa_k = f_k^* \text{학교적응} + \delta_k \tag{8}$$

(4)와 (5)는 본 연구모형의 잠재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방정식으로서, a 와 c 는 외생변수인 가족결속력의 회귀계수, b 는 내생변수인 자기효능감의 회귀계수, 그리고 e_1 와 e_2 는 방정식의 오차항을 의미한다. (6)~(8)은 측정모형을 나타내는 식으로서, f_{c_i} ($i=1\sim5$)는 가족결속력의 측정변수들, se_j ($j=1\sim3$)는 자기효능감의 측정변수들, sa_k ($k=1\sim5$)는 학교적응의 측정변수들이며, f_i, f_j, f_k 는 각 측정변수들의 요인부하량, 그리고 $\delta_i, \delta_j, \delta_k$ 는 각각의 측정오차들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구성된 구조방정식 모형은 AMO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의 추정방법으로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표 1.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결과

(n=9,844)

	sa1	sa2	sa3	sa4	sa5	fc1	fc2	fc3	fc4	fc5	se1	se2	se3
sa1													
sa2	.847**												
sa3	.828**	.843**											
sa4	.698**	.772**	.711**										
sa5	.680**	.722**	.692**	.727**									
fc1	.657**	.688**	.660**	.634**	.605**								
fc2	.594**	.623**	.597**	.575**	.549**	.878**							
fc3	.604**	.581**	.573**	.536**	.525**	.814**	.835**						
fc4	.592**	.620**	.594**	.555**	.530**	.821**	.824**	.845**					
fc5	.525**	.535**	.527**	.493**	.483**	.750**	.769**	.801**	.808**				
se1	.569**	.598**	.592**	.536**	.511**	.644**	.617**	.559**	.583**	.515**			
se2	.556**	.605**	.561**	.542**	.517**	.629**	.603**	.547**	.590**	.503**	.812**		
se3	.488**	.514**	.493**	.460**	.439**	.553**	.530**	.497**	.518**	.473**	.715**	.723**	
M	3.06	2.68	2.59	2.95	2.83	3.14	2.95	3.03	3.19	3.09	3.03	2.87	2.80
SD	.683	.763	.774	.716	.738	.726	.840	.771	.744	.789	.684	.720	.729
왜도	-.594	.008	.064	-.437	-.378	-.668	-.423	-.554	-.745	-.643	-.540	-.302	-.302
첨도	.838	-.468	-.447	.233	.050	.503	-.457	.062	.420	.060	.693	-.031	-.038

** p<.01
 주)sa1-sa5:학교적응 측정문항, fc1-fc5:가족결속력 측정문항,se1-se3:자기효능감 측정문항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다. 또한 가족결속력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Z_{ab} = \frac{ab}{\sqrt{b^2SE_a^2 + a^2SE_b^2}} \quad (9)$$

(9)에서 a와 b는 회귀계수, 그리고 SE_a와 SE_b는 표준오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76], 본 연구모형에서의 a는 가족결속력의 회귀계수, 그리고 b는 자기효능감의 회귀계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SPSS 20.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변수의 기초통계 결과

본 연구의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분석으로 평균 및 표준편차 등과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왜

도와 첨도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상분포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측정모형 분석결과

잠재변수	경로	b	β	SE	t
가족결속력	→ fc1	1.000	.850		
	→ fc2	1.139***	.837	.012	95.314
	→ fc3	1.123***	.899	.011	103.132
	→ fc4	.989***	.821	.011	89.028
	→ fc5	.984***	.770	.011	86.932
자기효능감	→ se1	1.000	.775		
	→ se2	1.043***	.768	.009	52.103
	→ se3	1.053***	.766	.012	46.339
학교적응	→ sa1	1.000	.753		
	→ sa2	1.080***	.728	.007	60.771
	→ sa3	1.131***	.751	.008	57.269
	→ sa4	.807***	.579	.010	46.897
	→ sa5	.812***	.566	.010	47.913

X²(df;p)=428.753(52;.000) TLI=.991 CFI=.995 RMSEA=.027

*** p<.001

2. 모형 검증

2.1 측정모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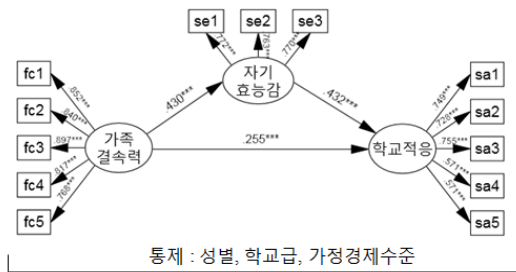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하여 측정모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1 왜도가 2보다 크거나 첨도가 7보다 큰 경우(일반적인 통계 패키지에서는 3을 뺀 4보다 큰 경우)가 아니면 추정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77].

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², 잠재변수로부터 각 측정변수들로의 경로가 모두 유의도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구조모형 분석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잠재변수, 즉, 가족결속력, 자기효능감, 그리고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구성된 구조모형에 대하여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제 : 성별, 학교급, 가정경제수준
 $\chi^2(df, p)=1194.198(96;.000)$ $TLI=.978$ $CFI=.986$ $RMSEA=.034$

***p<.001. 표준화계수. 오차항 및 통제변수경로 생략.

그림 2. 구조모형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로계수를 살펴 보면, 가족결속력은 자기효능감($\beta=.430, p<.001$)과 학교적응($\beta=.255, p<.001$)에 각각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 역시 학교적응($\beta=.432, p<.0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3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가족결속력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 사이의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결속력이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학교적응에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함으로써 가족결속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보호효과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가족결속력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Z	p
가족결속력 → 자기효능감 → 학교적응	22.248	.000

3. 주요 결과 분석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성원들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하게 느끼는 청소년들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고, 학교적응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에 대한 이러한 가족결속력의 영향은 선행 연구들[15][19-21][23-25][52][53]에서도 확인된 바 있어 본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개입 시 청소년의 삶에 있어서의 가족의 주요한 역할과 부모의 참여에 대한 고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 즉,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학교적응 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에 대한 청소년 개인요인으로서 자기효능감이 가지는 이러한 긍정적 영향은 국내에서 보고된 메타분석 연구들 [17][18]을 통해서도 그 효과크기 측면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는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적응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을 위한 상담 또는 개입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함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족결속력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의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² TLI와 CFI는 .95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되며[78][79], RMSEA는 RMSEA<.05 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RMSEA<.08이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 RMSEA<.10이면 보통 적합도(mediocre fit), RMSEA>.10이면 나쁜 적합도(unacceptable fit)를 나타낸다[80].

이는 가족결속력이 청소년의 학교적응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영향은 자기효능감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자기효능감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으며,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서 가족에 대한 개입 및 지원을 통하여 가족결속력을 강화하는 것 역시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뒷받침되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결속력, 자기효능감, 그리고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결속력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매개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러한 목적 하에서 수행된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주요 결과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결속력과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이러한 가족 및 개인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경험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한 본 연구의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학교적응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가족결속력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적응은 학업적 차원 뿐 아니라 청소년의 발달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을 위하여 학업적 측면에서의 과업 수행 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사회적 차원에서의 적응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의 학교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청소년기 가족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된 개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변화와 독립의 시도가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에도 여전히 가족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 가족을 포함하는 개입은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의 학교적응력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고려와 참여가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위한 실천적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가족 관점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에게 가족 체계와 기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이나 훈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의 개입에 가족이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라도 청소년의 가족 관계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이를 개입에 반영하는 것 역시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요인으로서 가족요인인 가족결속력과 개인요인인 자기효능감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 역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횡단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관련 변인들 간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존재한다. 추후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에 대하여 종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주요 예측요인으로서 가족 및 개인 요인의 관계만 검증한 한계 역시 존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래 및 교사 요인 역시 포함하여 검증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예측요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제한적인 문항으로 각 변수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진 한계 역시 존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각 변수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정확한 측정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검증된 모형에 대한 재확인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다른 연구들과의 차

별성 및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학교적응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가족결속력의 고유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즉, 가족결속력을 다룬 선행연구들의 경우, 선형 관계를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된[59] 가족적응력과 함께 측정하였거나 가족의사소통이나 문제해결능력 등 상이할 수 있는 하위차원들을 통합하여[20] 분석한 한계가 존재하는 반면, 본 연구는 가족결속력의 고유한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둘째, 가족결속력과 학교적응 사이에서의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관련 연구들은 다수 보고된 반면 [20][21][67], 직접적으로 이러한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해 가족결속력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매개한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는 차별성을 가진다. 셋째,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측정오차를 통제하여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한 장점을 가진다. 넷째,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하여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결속력과 자기효능감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확인되어 온 반면, 이러한 가족요인과 개인요인 간의 관계에 대한 검증은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학업수행이나 적응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확인한 일부 연구자들은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서 가족결속력의 유의한 영향력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청소년의 학교적응력 뿐 아니라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실천적 노력의 방향을 제시한 의미를 가진다. 다섯째, 그동안 학교적응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초등학교생이나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등 제한된 연령 범위의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초기에서 후기까지의 청소년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고등학생까지 초기, 중기, 후기 청소년들을 모두 포

괄함으로써 전 청소년기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족결속력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예방 및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여성가족부, 2014 청소년 백서, 여성가족부, 2014.
- [2] <http://news.kbs.co.kr/news/view.do?ref=D&nacd=3074515>
- [3]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421424&code=41121111&cp=du>
- [4] 최정아, “초기 청소년기 공격성의 발달적 변화와 가족 영향 요인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2호, pp.294-307, 2014.
- [5] A. J. Fuligni, "Authority, Autonomy, and Parent-Adolescent Conflict and Cohesion: A Study of Adolescents from Mexican, Chinese, Filipino, and European Background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4, No.4, pp.782-792, 1998.
- [6] L McDonald and T. V. Sayger, "Impact of a Family and School Based Prevention Program on Protective Factors for High Risk Youth," In J. Valentine, J. A. DeJong, and N. M. Kennedy (Eds.), *Substance Abuse Prevention in Multicultural Communities*, pp.61-85, Haworth Press, 1998.
- [7] Y. R. Xia, C. Wang, W. Li, S. Wilson, K. Bush, and G. Peterson, "Chinese Parenting Behaviors, Adolescent School Adjustment, and Problem Behavior," *Marriage and Family Review*, (just-accepted), 2015.
- [8] G. W. Ladd, S. H. Birch, and E. S. Buhs,

- "Children's Social and Scholastic Lives in Kindergarten: Related Spheres of Influence?," *Child Development*, Vol.70, No.6, pp.1373-1400, 1999.
- [9] J. A. Baker, "Contributions of Teacher-Child Relationships to Positive School Adjustment during Elementary School," *J. of School Psychology*, Vol.44, pp.211-229, 2006.
- [10] C. C. Raver, "Emotions Matter: Making the Case for the Role of Young Children's Emotional Development for Early School Readiness", *Social Policy Report*, Vol.16, pp.3-18, 2002.
- [11] D. H. Olson, H. I. McCubbin, H. L. Barnes, M. J. Muxen, A. S. Larsen, and M. A. Wilson, *Families: What Makes them Work?*, Updated Edition, Sage Pub. 1989.
- [12] 신선화, 정구철, "자기수용과 가족용서가 가족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3호, pp.277-288, 2014.
- [13] P. H. Tolan, D. Gorman-Smith, L. R. Huesmann, and A. Zelli, "Assessment of Family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A Measure to Explain Risk for Antisocial Behavior and Depression among Urban Youth," *Psychological Assessment*, Vol.9, pp.212-223, 1997.
- [14] G. M. Fosco, A. S. Caruthers, and T. J. Dishion, "A Six-Year Predictive Test of Adolescent Family Relationship Quality and Effortful Control Pathways to Emerging Adult Social and Emotional Health," *J. of Family Psychology*, Vol.26, No.4, pp.565-575, 2012.
- [15] F. F. Marsiglia, M. Parsai, and S. Kulis, "Effects of Familism and Family Cohesion on Problem Behaviors among Adolescents in Mexican Immigrant Families in the Southwest United States," *J. of Ethnic and Cultural Diversity in Social Work*, Vol.18, No.3, pp.203-220, 2009.
- [16] D. B. Qin, E. Rak, M. Rana, and M. B. Donnellan, "Parent-Child Relation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High-Achieving Chinese and European American Adolescents," *J. of Adolescence*, Vol.35, No.4, pp.863-873, 2012.
- [17] 이지언, 정익중, 백종림, "학교적응의 예측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아동학회지*, 제35권, 제2호, pp.1-23, 2014.
- [18] 정윤경, 임선아,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의 상관관계에 관한 메타분석", *교육심리연구*, 제27권, 제4호, pp.853-873, 2013.
- [19] 양점도, 박영국, "가족요인과 또래지지가 자기효능감 및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4권, 제4호, pp.211-235, 2009.
- [20] 장성화, 최성열, 함성수,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제23권, 제2호, pp.183-196, 2014.
- [21] M. S. Leidy, N. G. Guerra, and R. I. Toro, "Positive Parenting, Family Cohesion, and Child Social Competence among Immigrant Latino Families," *J. of Family Psychology*, Vol.24, No.3, pp.252-260, 2010.
- [22] 이정은, 조미형, "남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제3호, pp.79-102, 2007.
- [23] 이현아, 최인숙, "가족식사 및 가족기능이 초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1권, 제3호, pp.1-13, 2013.
- [24] 권순용, "청소년의 학교적응 관련변인의 인과적 구조분석", *중등교육연구*, 제54권, 제3호, pp.329-349, 2006.
- [25] 이명심, 장경문,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제22권, 제3호, pp.205-233, 2015.
- [26] 조미형, 이정은, "고등학교로의 진학 과정 (school transition) 에서 학교적응 변화", *한국청*

- 소년연구, 제19권, 제2호, pp.63-86, 2008.
- [27] 최정아, "청소년의 지각된 부모지지, 자아통제력, 학교적응의 중단적 관계", 사회과학연구, 제27권, 제3호, pp.189-212, 2011.
- [28] 김득성, 김수연, "가족의 응집 및 적응 척도의 선형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연구보고, 제19권, pp.1-9, 1993.
- [29] R. Murray-Harvey and P. T. Slee, "Family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Predictors across the School Year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Dare*, Vol.145, No.1, pp.133-149, 1998.
- [30] D. T. Shek, "Family Function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chool Adjustment, and Problem Behavior in Chinese Adolescents with and without Economic Disadvantage," *The J. of Genetic Psychology*, Vol.163, No.4, pp.497-502, 2002.
- [31] G. W. Ladd and J. M. Price, "Predicting Children's Social and School Adjustment Following the Transition from Preschool to Kindergarten," *Child Development*, Vol.58, pp.1168-1189, 1987.
- [32] K. E. Perry and R. S. Weinstein, "The Social Context of Early Schooling an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Educational Psychologist*, Vol.33, pp.177-194, 1998.
- [33] K. R. Wentzel, "Social-Motivational Processe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Motivation at School," *J.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91, pp.76-97, 1999.
- [34] K. R. Wentzel, "School Adjustment," In W. M. Reynolds and G. E. Miller (Eds.), *Educational Psychology*, Vol.7, pp.235-258, Wiley, 2003.
- [35] C. F. Huang, *An Examination of Relations among Taiwanese Elementary-Aged Children's Effortful Control, Social Relationships, and Adjustment at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Iowa, 2010.
- [36] U. Bronfenbrenner,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 [37] J. G. Smetana, N. Campione-Barr, and C. Daddis, "Longitudinal Development of Family Decision Making: Defining Healthy Behavioral Autonomy for Middle Class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Vol.75, pp.1418-1434, 2004.
- [38] L. Steinberg, "We Know Somethings: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in Retrospect and Prospect," *J. of Research on Adolescence*, Vol.11, pp.1-19, 2001.
- [39] D. H. Olson, C. S. Russell, and D. H. Sprenkle,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Vol.22, No.1, pp.69-83, 1983.
- [40] R. Moos, *Preliminary Manual for Family Environment Scale, Work Environment Scale and Group Environment Scale*,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74.
- [41] N. Mulvaney-Day, M. Alegria, and W. Sribney, "Social Cohesion, Social Support and Health among Latinos in the United State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Vol.64, No.2, pp.477-495, 2007.
- [42] J. M. Rey, G. Walter, J. Plapp, and E. Denshire, "Family Environment in ADHD, Oppositional Defiant and Conduct Disorders," *Australia and New Zealand J. of Psychiatry*, Vol.34, pp.453-457, 2000.
- [43] E. M. Cummings, P. T. Davies, and K. S. Simpson, "Marital Conflict, Gender, and Children's Appraisals and Coping Efficacy as Mediators of Child Adjustment," *J. of Family Psychology*, Vol.8, pp.141-149, 1994.
- [44] H. D. Johnson, J. C. Lavoie, and M. Mahoney,

- "Interparental Conflict and Family Cohesion: Predictors of Loneliness, Social Anxiety, and Social Avoidance in Late Adolescence," *J. of Adolescent Research*, Vol.16, No.3, pp.304-318, 2001.
- [45] V. C. Lucia and N. Breslau, "Family Cohesion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Psychiatry Research*, Vol.141, pp.141-149, 2006.
- [46] J. F. G. Moreira and E. H. Telzer, "Changes in Family Cohesion and Links to Depression during the College Transition," *J. of Adolescence*, Vol.43, pp.72-82, 2015.
- [47] L. M. McKelvey, N. A. Connors-Burrow, G. R. Mesman, J. R. Pemberton, and P. H. Casey, "Promoting Adolescent Behavioral Adjustment in Violent Neighborhoods: Supportive Families Can Make a Difference!," *J.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Vol.44, No.1, pp.157-168, 2015.
- [48] L. Plybon and W. Klierer, "Community Types and Externalizing Behavior in Urban School-Age Children: Tests of Direct, Mediated, and Moderated Effects," *J. of Child and Family Studies*, Vol.10, pp.419-437, 2001.
- [49] W. T. Church, S. Tomek, K. A. Bolland, L. M. Hooper, J. Jagers, and J. M. Bolland,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Predictors of Delinquency: An Analysis of Data from the Mobile Youth Surve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34, No.12, pp.2400-2408, 2012.
- [50] C. Cooney,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ism and Child Maltreatment in Latino and Anglo Families," *Child Maltreatment*, Vol.6, pp.130-142, 2001.
- [51] M. Matheme and A. Thomas, "Family Environment as a Predictor of Adolescent Delinquency," *Adolescence*, Vol.36, pp.655-665, 2001.
- [52] A. N. Chawla,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Environ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Indian Streams Research Journal*, Vol.1, No.12, pp.1-4, 2012.
- [53] M. Dekovic, J. M. Janssens, and N. As, "Family Predictors of Antisocial Behavior in Adolescence," *Family Process*, Vol.42, No.2, pp.223-235, 2003.
- [54] 장성화, 박영진, "초등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7호, pp.463-472, 2013.
- [55] D. H. Olson,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J. of Family Therapy*, Vol.22, No.2, pp.144-167, 2000.
- [56] A. M. Meijer, R. W. Griffioen, J. C. van Nierop, and L. Oppenheimer, "Intractable or Uncontrolled Asthma: Psychosocial Factors," *J. of Asthma*, Vol.32, No.4, pp.265-274, 1995.
- [57] J. Polivy and C. P. Herman, "Causes of Eating Disorder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53, No.1, p.187-213, 2002.
- [58] K. Reichenberg and A. G. Broberg, "Children with Asthma. Few Adjustment Problems are Related to High Perceived Parental Capacity and Family Cohesion," *Nordic J. of Psychiatry*, Vol.59, No.1, pp.13-18, 2005.
- [59]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84, No.2, pp.191-215, 1977.
- [60] M. R. Leary and J. P. Tangney,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Guilford Press, 2003.
- [61] A. Luszczynska, B. Gutiérrez Doña, and R. Schwarzer, "General Self-Efficacy in Various Domains of Human Functioning: Evidence from Five Countries," *International J. of Psychology*, Vol.40, No.2, pp.80-89, 2005.

- [62] C. O. Hoeltje, S. R. Silbum, A. F. Garton, and S. R. Zubrick, "Generalized Self-Efficacy: Family and Adjustment Correlates," *J.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25, No.4, pp.446-453, 1996.
- [63] Z. Ma, W. Zeng, and K. Ye, "Gender Differences in Chinese Adolescents' Subjective Well-Being: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Psychological Reports: Sociocultural Issues in Psychology*, Vol.116, No.1, pp.311-321, 2015.
- [64] Y. Tong and S. Song, "A Study on General Self-Efficacy and Subjective Well-Being of Low SES College Students in a Chinese University," *College Student Journal*, Vol.38, No.4, pp.637-642, 2004.
- [65] B. J. Zimmerman, "A Social Cognitive View of Self-Regulated Academic Learning," *J.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81, No.3, pp.329-339, 1989.
- [66] K. D. Multon, S. D. Brown, and R. W. Lent, "Relation of Self-Efficacy Beliefs to Academic Outcomes: A Meta-Analytic Investigation," *J. of Counseling Psychology*, Vol.38, pp.30-38, 1991.
- [67] M. M. Chemers, L. T. Hu, and B. F. Garcia, "Academic Self-Efficacy and First Year College Student Performance and Adjustment," *J.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93, No.1, pp.55-64, 2001.
- [68] R. W. Roeser, C. Midgley, and T. C. Urdan, "Perceptions of the School Psychological Environment and Early Adolescents'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Functioning in School: The Mediating Role of Goals and Belonging," *J.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88, No.3, pp.408-422, 1996.
- [69] K. Schnell, T. Ringeisen, D. Raufelder, and S. Rohrmann, "The Impact of Adolescents' Self-Efficacy and Self-Regulated Goal Attainment Processes on School Performance-Do Gender and Test Anxiety Matter?,"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38, pp.90-98, 2015.
- [70] G. V. Caprara, P. Steca, M. Gerbino, M. Paciello, and G. M. Vecchio, "Looking for Adolescents' Well-Being: Self-Efficacy Beliefs as Determinants of Positive Thinking and Happiness," *Epidemiologia e Psichiatria Sociale*, Vol.15, No.1, pp.30-43, 2006.
- [71] 최인재,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V-2010 한국 청소년 건강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 [72] R. E. Schumacker and R. G. Lomax, *A Beginner's Guide to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 2nd Editi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4.
- [73] 홍세희, *구조방정식 모형의 고급 방법*. 홍세희 교수의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샵 시리즈 4 자료집, S & M 리서치그룹, 2008.
- [74] K. A. Bollen,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Wiley & Sons, 1989.
- [75] 김진호, 홍세희, 추병대, "경영학 연구에서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용: 문헌 연구와 비판", *경영학 연구*, 제36권, 제4호, pp.897-923, 2007.
- [76] M. E. Sobel,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pp.290-312, Jossey-Bass, 1982.
- [77] P. J. Curran, S. G. West, and J. F. Finch,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Vol.1, No.1, pp.16-29, 1996.
- [78] L. Hu and P. M. Bentler, "Fit Indices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Sensitivity to Underparameterized Model Misspecification," *Psychological Methods*, Vol.3, No.4, pp.424-453, 1998.

- [79] L. Hu and P. M. Bentler,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l.6, No.1, pp.1-55, 1999.
- [80] M. W. Browne and R. Cudeck,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and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136-162, Sage Pub, 1993.

저 자 소 개

최 정 아(Jung-Ah Choi)

정회원



- 1994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사업학과(문학사)
 - 1998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09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사회복지학 박사)
 - 2010년 9월 ~ 2014년 8월 : 경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2014년 9월 ~ 현재 : 경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청소년복지, 정신건강